

畜産業의 歷史的인 背景과

소와 人類文化와의 相關性

會長 黃 永 球

〈社團法人 韓國酪農肥育協會〉

1. 畜産業의 歷史的인 背景과 韓民族의 精氣

人類發祥의 기원은 신화적인 과제로서 고고학적 考證에 의하여 무한한 연구와 논란이 계속되리라고 믿으나 推理를 가지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人種이나 민족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인간이 言語만을 가지고 생활하여 온 기간보다 文字를 발명하여서 말과 글을 共用하면서 살아온 年代가 훨씬 짧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通說로 5,000년이라고 한다면 漢字의 창조는 대개 紀元前 1,300년 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傳來된 것은 4세기라고 하니까 우리 韓民族이 우랄 알타이(Ural Altai) 語族에 속하는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살아온 기간은 3400년이고 漢字를 傳習하여 말과 漢文을 같이 쓰면서 생활한 年數는 1,600년이며 한글을 발명하여 한글, 漢文 및 漢字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한 한국말 세가지를 가지고 韓民族의 生活史를 口傳 보다는 記錄에 남기면서 지내온 기간은 500여년이 된다고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漢字가 傳來하기 전에 3,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말만으로 傳說과 行動에 의하여 우리민족의 生活樣式과 慣習 및 文化가 繼承되어 왔던 것으로서 原始社會의 生活手段인 農業이 主畜과 主穀의 형태가 年代的으로 다르기를 할 것이나 발달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言語分類上으로 한국말이 속해 있는 우랄 알타이어의 起源과 傳播의 경로를 보면 우랄어는 헝가리말, 필란드말 등이고 알타이어는 몽고말, 터키말, 일본말과 퉁구서(Tungus)族에 속하는 韓民族 고유의 한국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랄, 알타이어의 발달과 分布狀態를 볼때 우리 韓民族은 몽고와 가장 인연이 깊은 種族으로서 古代의 산업도 몽고와 같이 遊牧을 주로 하는 主畜農이었던 것이 틀림 없다고 인정되는데 그 증거로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축산과 관계가 깊은 地名이 많다는 것과 현재도 제주도에는 몽고의 遊牧生活과 같은 소와 말의 유목이 年中無休로 산록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放牧의 대상인 韓牛와 濟州馬의 發祥起源에 대하여 國內外 학자들의 연구발표를 살펴보면 한우는 아세아 중앙대륙 중부인 몽고와 만주의 公主嶺以北 몽고족이 살고 있는 지방의 原産으로서 近來에 와서는 소의 혈액형 연구조사가 발달되어 더욱 명확한 考證으로 定說化 하였고 濟州馬도 蒙古馬와 滿洲馬등이 들어와서 단독 또는 交雜되면서 小型化 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제주도에서 固有品種으로서 번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畜産의 大命題를 놓고 다시 한번 깊은 考察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蒙古의 징기스칸(Jinghis Khan)이 人類有史以來 그 누구보다도 廣域하게 세계를 제패하였다는 것은 몽고족이 遊牧生活과 肉類를 主食으로 한데서 얻어지는 용맹스러운 精神力과 강인

한 體力에서 由來된 因果라고 보는데 우리 韓民族도 蒙古民族과 같이 古代에는 游牧 생활을 하면서 動物性 蛋白質 食品인 肉類를 主食으로 하였기 때문에 新羅王朝에 이르러서는 三國을 統一하였고 세계의 三大文化라고 하는 新羅文化를 형성하면서 정교하고도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新羅의 金冠이나 佛國寺의 多寶塔과 같은 찬란한 文化의 産物을 偉大한 遺蹟으로 남길수 있었으며 현재 慶州 박물관에서 당시 石棺이나 王의 腰帶를 볼때 신라의 王族이나 花郎들의 웅장 하였던 體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들의 姿態와 氣象은 原始時代로 부터 현재까지 畜産물을 계속 主食으로 하고 있는 白人種의 體格이나 氣質보다도 우월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된다.

歷史的인 年代는 미상하다고 하나 약1,700여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간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漢民族의 왕래가 빈번하여졌고 佛敎와 儒敎文化의 傳來로 문순지대에 속하는 主畜 游牧형태에서 主穀農業으로 서서히 변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민족의 主食이 穀類로 바뀌어지면서 新羅時代의 웅대 하였던 體格과 용감하였던 花郎의 精氣는 점차적으로 쇠퇴되어 李朝時代에 이르러서는 日本人 加藤清正에게 全國土를 유리 당하였고 급기야는 일본의 不法的인 強占을 굴욕적으로 감수하여 36년이라는 長久한 세월을 日帝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야 하는 민족 참변을 고통속에 體驗하기도 하였다.

動物界에서도 人類社會와 같이 肉食을 하는 사자, 호랑이, 표범등은 날쌔고 용맹스러운 反面 草食을 하는 소, 양, 낙타등은 비겁할 정도로 溫順하며 無氣力하기만 한데 인류사회의 國家나 民族의 흥망성쇠도 肉類를 主食으로 하는 나라의 民族과 穀類를 主食으로 하는 나라의 민족간의 歷史的인 과거를 살펴보면 穀類主食인 主穀農業의 나라와 百姓은 항상 弱者였고 빈한하기만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같이 약한 民族은 강한 민족에서 먹혀 왔

고 또 먹고 있는데 이러한 現狀은 道德的으로는 不條利한 일이지는 하나 과거의 歷史나 現在는 물론 將來에도 무자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성하고 反省하여서 新羅王朝의 隆盛한 번창과 榮華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우리민족의 底力을 발휘할 수 있는 방도로서 主穀農業에만 置重하고 있는 農業의 政策이나 構造를 과감하게 개선하여서 主畜으로 전환하고 국민에게 肉類의 섭취량을 白人 水準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國民에게 강한 힘을 培養하고 國家의 富를 莫大하게 축적할 수 있는 人間의 體力과 精神力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絶對的 영양소인 動物性 蛋白質 食品의 공급에 기초가 되는 畜産業을 主穀農業만을 절대 優先으로 하고 畜産을 副業으로의 轉落을 주장하는 農業敎育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比較優位說을 가지고 포기론 까지 제기하는등 純粹性이 없는 政策論者의 附和記事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世代가 결단코 하여야 할 일중에 가장 重要한 것은 점진적으로 農業構造를 家族經營에 依하는 主畜農家로 改革하여서 自生하는 畜産業을 背景으로 畜産物의 供給을 安定化 할 수 있는 基盤을 공고히하여 막강한 富와 힘을 가지고 번영을 이루고 있는 肉類를 主食으로 하는 白人種이 살고 있는 國家와 같은 韓國을 건설하여 新羅의 文化와 花郎의 氣象이 우리민족의 精氣로서 再現할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하여 우리의 後孫을 李朝時代와 같은 弱者로 만들지 말고 新羅時代와 같은 強者가 되도록 하는 일인 것이다.

이를 爲하여는 畜産業이 自己位置에 확고히 설수 있도록 懷疑와 異論을 갖지 말고 온 國民이 一心하여 國家의 무궁한 발전을 爲한 民族의 精氣를 培養하여야 한다.

2. 酪農業의 回顧와 將來

歷史는 事實의 輕重을 가릴 것 없이 記錄을

남기고 그 기록된 역사적인 功過에 대하여 後孫들이 公定하게 판단할 수 있는 資料가 되어 功은 善으로 채택하고 過는 惡으로 버릴수 있게 하는 人類永生の 教材가 되어야 한다.

좀더 正義로운 나라 先進國에서는 近代의 사실은 물론이요 古代史에 이르기 까지 각부문별로 人間이 관여하여온 일들에 대한 발달과정의 非理와 正論이 詳細하게 기록되어 보존되면서 學問的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한나라의 考證에 의한 文化遺産으로서 不滅의 光明으로 국가의 번영과 民族의 榮華를 爲하여 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적어도 중요한 事案에 대한 것을 기록에 남기는 習慣을 培養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自然科學 分野에 있어서는 기록에 남긴다는 그 業績 자체도 중요하지만 自己 向上을 위하여 각자가 探求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기록을 하겠다는 精神이 그 民族을 얼마나 支配하고 있느냐 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自然科學 부문인 畜産業의 과거와 현실을 보면 家畜이 主軸이 되어 그 나라의 과학발달의 原動力의 역할을 하면서 畜産食品을 主食으로 전체 국민의 人知를 向上시켜온 나라는 家畜改良에 대한 所重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의 활용으로 畜群의 生産能力을 증가하여 養畜家의 所得을 증대하고 그 소득은 再投資의 형태로 民族資本을 형성하여 高度의 産業社會의 발달과 경제부흥에 공헌하여 왔고 또 현재에도 그러하며 將來에는 더욱 그 寄與도가 크게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歐羅巴나 北美洲의 主畜農業 국가들에 있어서 畜産關係 學者들은 물론이요 政治, 經濟, 社會部門의 학자들 까지도 強調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듣고만 하여서는, 아니 된다.

畜産業中 酪農은 그 대상인 젖소의 改良도가 生産能力에 있어서 增加指數로 算定하여 볼 때 전체 농업의 作目中 原始農業에서 現代農業으로의 발달과정에서 그 生産指數가 제일 높은 것으로서 牛乳와 쇠고기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유는 處理加工을 하여서만이 畜産食品으로서 市場機能에 의하여 消費者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공 과정에서 제 2차산업과 流通過程에서 제 3차산업 발달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는 것들이 分明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自己의 희생으로서 終末을 고하면서 人類에게 無限한 報答을 하기 위하여 젖을 生産하는 牛公들은 酪農이라는 産業을 助長시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낙농가들의 애호속에 祖上으로부터 이어받은 遺傳力에 의한 生産을 정직하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酪農業의 과거를 살펴보면 李朝末期에는 鎖國主義 정책에 의하여 外國의 文物 流人이 활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당시 王朝가 外國人의 권고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홀스타인種 20頭를 수입하여 朝廷에서 필요로 하는 補藥의 성격으로 牛乳生産을 시도 하였으나 王政의 混沌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日帝侵略 후에는 日人들의 한국이주가 증가하면서 都市로 集中하는 日人用 牛乳를 생산하기 위한 酪農業이라기 보다 搾乳業이 都市近郊에서 日人에 의하여 牧場이라는 말과 함께 開始되었다.

日帝 36년간 당시 成歡牧場 및 江原道 淮陽郡 蘭谷機械農場등 수 개의 목장들은 搾乳業 형태가 아닌 낙농업의 經營體制로서 비교적 健全하게 運營 되었던 牧場도 있었다.

日本の 제 2차대전에서 敗色이 짙어 갈 1940년부터 1945년 上半期 까지 당시 日本內에 約20만두의 젖소가 있었으나 日人の 노동력 부족과 현해탄의 釜關連絡船의 해상수송이 美軍의 기뢰부설 관계로 곤란하게 됨에 따라 韓國內에 거주하고 있는 日人들의 幼兒用 우유공급을 목적으로 日人 乳業會社인 明治와 森永의 兩大會社로 하여금 乳加工工場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면서 江原道 平康郡 洗浦에 明治牧場과 황해도 신계에 森永牧場등을 新設하게 하고 매년 500두씩 홀스타인種 젖소를 일본으로부터 이동 入殖하였으나 일본의 敗戰과 함께 주민들의 일본에 대

한 보복 또는 소련진주군의 搬出등으로 대규모酪農牧場들은 거의가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다.

8.15해방후 日人의 철수와 함께 日人 소유 목장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經營權이 넘어왔으나 資本과 技術의 부족으로 젖소 수는 감소를 거듭하면서 1949년대에 1,000두선을 겨우 유지하였으나 6.25 동란으로 1951~1954년 까지는 200두에서 300두를 오르내리는 최저선을 배회하는 참상이었다.

1960年代 上半期에 1,000頭に 도달하면서 5.16革命後 果敢한 經濟開發計劃에 힘입어 1967년에 10,000頭, 1977년에 100,000頭, 1982년에는 228,248頭를 上廻하는 線까지 乳牛의 増殖을 보게 되었다.

乳牛 飼育頭數의 증가와 함께 乳加工業도 크게 發展하여 1980年度 牛乳處理 加工製品의 總賣出額이 3,400억원을 넘어 서고 있으며 原乳도 4억5천2백만kg, 1982년에는 5억8천124만kg을 生産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酪農業이 農村에 定着함과 동시에 全國으로 확산하면서 酪農家의 所得增大는 물론이요 農村經濟復興과 國民保健을 위한 畜産食品 生産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酪農家, 乳加工業體 및 政府가 三位一體가 되어 生産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젖소의 改良事業을 核으로 하여 낙농업을 健全하게 發展하도록 그 位置를 잡아 주어야 하겠다.

1960年代 부터 1970年代末 까지 20年間の 낙농업의 主要施策과 業績들을 살펴 보면 1962년도에 뉴질랜드로부터 홀스타인種 500두를 政府가 國費로 직접 도입을 하여 乳牛貸付規程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生産牝犢牛 1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각 道知事의 관리책임하에 낙농가에게 대부 하였으며 같은해 서울우유협동 조합에 우유가공처리工場 신축시설 資金 1억원을 정부가 補助를 하였고 계속하여 2년간 廣口牛乳瓶 개량을 위한 年間 1,800만원의 보조를 추가하였다.

1968年度에는 政府間 차관으로 캐나다로 부

터 925,000불 酪農業 支援資金을 借入하여 血統登錄된 홀스타인種 1,478두와 대형 농기구 및 낙농기자재와 牧草種子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낙농업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拍車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후 政府間 協定으로 獨逸과 (7,093,000불), 뉴질랜드로 부터 資金과 技術의 지원을 받아 2개소의 酪農示範牧場을 설치하고 선진국의 새로운 西歐式 낙농기술을 도입하여 낙농가의 現場修練으로 우리나라 酪農技術 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있는 그 功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두개의 酪農示範牧場의 管理放任으로 설치 당시의 兩國政府가 목적 하였던 方向으로 運營되면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牧場間에 많은 差異가 있다고 본다.

1969년부터 세계은행의 綜合酪農借款 導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世界銀行, 國際食糧農業機構 및 일본정부 技術陣에 의한 수차에 걸친 豫備調査 및 評價調査報告書에 따라 총액 3,000만불의 차관이 결정되어 제 1차로 700만불은 세계은행의 國際開發處가 年0.75%의 低利로 정부에 제공하는 소위 I. D. A 자금으로서 낙농가에게 전체 농업분야에서 가장 有利한 低利(年 9%) 長期條件으로 젖소와 (4,940頭) 낙농기자재가 支援되었으며 제 2차로 1,500만불이 제 1차에 비하여 利子가 3% 높기는 하였으나 償還期間이 長期인 관계로 제 1차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로 낙농가를 지원하였다. 原則적으로 借款事業의 조사비용은 차관자금에 포함되는 것이나 綜合酪農借款에서는 자기 조사기관이 부담 하였다는 것은 특기하여야 할 사실이며 世界銀行이 처음 승인한 3,000만불中 既導入額 2,200만불을 除外한 800만불 未執行에 대한 이 유도 우리나라 낙농업 발전을 위하여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젖소의 飼養頭數가 200,000頭까지 增加하기에는 강력한 정부의 施策의인 지원에 힘입은바 절대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施行過程을 회고하여 보면 試行錯誤도 없지 않았다.

乳牛導入 배부 과정에서 낙농가가 부담하였던 젖소대금 內譯의 合理性 여부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간의 概略의인 投資比率 70對30에 대한 사회적인 優先順位의 選別感覺 및 낙농가의 실질적인 地域分割에 의한 從屬化 등은 再考되어야 하겠다. 낙농가 농민의 經濟團體 및 유가공업체등이 젖소 도입에 관여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6.25 동란후 젖소두수 200두선까지 감소되었던 時點을 始初로 하여 1980년까지 77,164두를 外國으로 부터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實績은 1980年末 總頭數의 40%에 該當하는 두수이다.

美國과 日本의 실례를 보면 미국은 1,000만여 두중 7,775두를, 일본은 200만두중 6,488두를 導入하였다고 하는 實績과 우리나라 導入頭數와 對比하여 불배 時代的인 經濟狀況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점도 將來의 乳牛 改良面과 두수 증식면에서 오류를 범하는 施策이 없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酪農家들의 기술습득에 對한 의욕의 고취와 酪農 科學者들에 의하여 體系化된 경영기술의 기본 이론을 위시하여 泌乳量 향상을 위한 젖소 改良事業에 적극적인 참여와 粗飼料 生産基盤과 供給體系의 확립, 高能力 泌乳牛와 分娩前後의 飼養管理 技術의 改善 및 多頭群飼에 따르는 기술과 시설기구의 改補修 등으로 앞으로 올 수 있는 低原乳價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데 낙농가와 축산경제단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강구하여야 할 줄로 안다.

畜産의 경제단체는 낙농가들을 빠른 시일내에 각기 地域이나 特殊協同組合의 會員으로 加入시켜 集乳體系를 一元化하고 낙농의 기술지도 체계를 정비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의 獨立性을 개척하고 기술자의 強靱한 使命感과 精神力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업무를 강화하여 낙농가들을 濃厚한 勞動密度의 作業으로 유도하면서 資本의 效率과 勞力의 生産性을 높여야 한다.

先進國의 실태를 보면 젖소의 飼養頭數와 낙농가수는 年次的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와는 反比例하여 牛乳生産量은 乳牛의 改良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酪農業이 요구하는 모든 기술업무를 충실하고 善良하게 실행하는 낙농가는 우수한 업적과 함께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生存하고 그렇지 못한 劣位의 낙농가층은 自然的으로 淘汰되어 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牛乳生産量이라고 할 수 있다.

韓, 美, 日間の 頭當 牛乳生産량의 平均을 개관하면 우리 나라는 1乳期當 4,000~6,000kg, 日本은 6,000~7,000kg, 美國은 7,000~8,000kg인데 美國은 10,000kg을 上廻하는 낙농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牛乳의 소비확대운동에 낙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낙농가들이 잊어서는 안되며 牛乳 소비확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資金 부담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牛乳加工處理業은 낙농가의 경제단체인 協同組合과 민간기업간의 乳製品 生産品目を 조정하여서 낙농가 단체는 原乳收集業務과 液狀牛乳 生産에 치중하여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서서 酪農家側의 기술개발에 注力하고 잡다한 유제품을 생산하면서 民間企業과의 판매경쟁을 시도하는 등의 사업들은 止揚하여야 한다.

政策的으로 反省하고 강구하여야 할 사항은 기존 낙농가의 經營安定對策을 수립하여 도중탈락을 방지하여야 하며 粗飼料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갖추고 家族勞力에 依하여 酪農業을 영위할 수 있는 新規 酪農家의 조성과 젖소 도입에 있어서는 血統登錄牛를 精銳 少數原則에 따라 실수요자가 직접 도입하도록 하는 낙농가의 요구와 檢收官의 有資格者 즉 젖소를 審査할 수 있는 기술자로 하여금 검수할 수 있는 문제들을 種畜이라는 것은 국가의 資産이라는 면에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畜産業이 국가의 主要産業이요 축산업 중 낙농업이 국민에게 무한한 공헌을 하고 있는 또 계속하여서 할 수 있다고 하면 粗飼料를 생산하는 飼料圃用 土地와 牧野地에 대하여서는 낙농업의 계속을 위하여 相續稅가 免除되어야 한다.

3. 酪農業 振興의 絶對性과 乳製品 輸入의 相衝性

國家는 國土를 생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國民은 경제적인 협동체제로 組織化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年代에 이룩하였던 경제성장으로 高度産業社會를 指向하면서 農業, 工業, 商業中 農業를 輕視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그 이유는 매년 농가의 호수와 농업에 종사하는 人口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의 농산물 특히 畜産物의 가격이 先進畜産業 主宗國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이다.

歐羅巴諸國, 濠洲, 뉴질랜드, 美國, 캐나다등 畜産물을 政策的으로 交易하고 있는 국가별로 그 나라들의 畜産業 보호라는 두터운 壁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지 않고 去來價格만을 기준으로 정부의 농업분야외의 경제나 재정을 다루는 정책 수립의 中堅 公職者들이 畜産業중 그 自主性和 收益性이 가장 강하고 높은 낙농업의 伸長을 저해하는 偏見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들과 같이 국가의 경제부흥과 國民의 體位向上 및 精神發展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감퇴하게 한다면 이는 巨視的으로 세계를 達觀할때 농업의 不安定이 國政의 不安定과 函數關係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행한 현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領土의 30%가 농토라고 하고 그 면적은 계속 유지된 것이기에 농업인구는 年次的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농민은 宿命的으로 그 농지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政府에서는 30%線의 농토에서 代代孫孫이 역사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호와 支援을 國民의 生存이라는 次元에서 恒久的으로 攄변하지 않는 政策的인 配慮를 강구하여야 한다.

1981年度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發行한 농업년감에 따르면 1970年 부터 1980年까지의 농

가호수는 2,481,525戶에서 2,158,392戶 로서 13.1%, 농가인구는 14,421,730名에서 10,830,585名으로서 25% 감소하였으나 農地面積은 田畝를 합하여 2,118,276.6ha에서 10年間 年度別로 약간의 增減은 있었으나 2,195,822.1ha로서 3.6%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볼때 商工業의 발전과 人口의 도시집중으로 농업인구의 適正水準까지는 계속 감소될 것이나 농가호수와 농지의 감소 현상은 이와같은 比率로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特別히 우리나라 酪農業의 發展을 統計的으로 살펴 보면 1970年 부터 1982年까지의 酪農家의 戶數는 3,126戶에서 22,536戶로서 720% 乳牛頭數는 23,624頭에서 228,248頭로서 966%나 증가 하였다.

畝의 면적은 近來 20年間 거의 1,300,000ha 内外로 유지하고 있으나 쌀의 생산량은 1978年度의 4,170萬石을 최고로 하여 1981년에는 近 700萬石이 감수된 3,500萬石이 實收穫量이었다.

水稻作과 酪農業에 있어서 실생산량의 年間經濟價値는 수도작이 優位에 있으나 두 作目別에 있어서의 增加指數와 투자의 효율은 낙농업이 단연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구조의 개혁이 서서히 主穀農業에서 主畜農業의 先進國型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낙농업의 진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酪農業의 생리는 原始農業에서 현대농업으로의 발전과정에서 그 생산성의 增加指數가 제일 높은 수준에 있음으로 농촌경제 향상에 우선적으로 기여하며 또한 原乳는 우리 인류의 體力向上과 知能開發에 가장 중요한 動物性蛋白質 食品으로서 필수적으로 重用되고 있는 우유제품을 처리가공 생산하므로써 공업의 발전과 雇傭增大의 효과를 기할 수 있으면서 판매 유통면에서 就業의 기회를 賦與하는데도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깨달아야 하며 땀 흘리며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농가들은 크게 自慢하여도 된다.

先進國의 낙농업에 관한 보호정책을 살펴 보면 먼저 美國은 産乳量에 있어서 1950年代에는 2,300,000頭의 젖소가 60,000,000M/T의 牛乳를 생산하였으나 1981년에는 젖소 1頭當 泌乳量이 約 30年間에 倍로 증가하여 10,186,000頭에서 同量의 牛乳를 생산하고 있다.

表 1. 全美耕種農家所得의 區分 (百萬弗)

年次	食糧用 穀物	飼料用 穀物	棉	果 作 (油脂)	果 樹	蔬 菜	其 他	計
1970	2,542	5,109	1,254	3,590	2,070	2,814	3,597	20,976
1975	7,760	12,150	2,311	7,273	3,525	5,350	6,780	46,150
1980	10,531	16,794	4,476	14,540	6,472	6,817	9,396	69,026
比率 (1960年)	15.3	24.3	6.5	21.1	9.4	9.8	13.6	100

美國農林省統計

表 2. 全美畜産農家所得의 區分 (百萬弗)

年次	牛	豚	羊	牛 乳	卵	其 他	計	
1970	13,633	4,508	334	6,525	2,110	1,564	886	29,563
1975	17,524	7,883	385	9,923	2,814	3,063	1,467	43,059
1980	31,173	8,920	471	16,598	3,248	4,431	2,564	67,405
比率 (1960年)	46.2	13.2	0.7	24.6	4.8	6.7	3.8	100

美國農林省統計

美國의 主要 農産물은 “갓트”中에서 “위바” 項目으로서 자유화의 의무를 免責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乳製品의 수입을 制限하고 있다. 海外로부터 수입은 높은 벽을 쌓고 制限을 하면서 國內에서는 높은 價格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國內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마켓팅오더”制度에 따라 지역별 飲用乳의 價格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르텔”을 인정하고 있으며 加工原料乳에 있어서는 정부가 價格을 정하고 그 安定을 위하여 無制限 乳製品의 買上을 실시하고 있다.

最近 미국에서는 경제불황과 失職者의 증가로 유제품의 需要가 급속히 下落하여 과잉생산 상태를 이루어 유제품을 買上하는데 C.C.C 資金(商品金融公社)을 1981년에 20억불을 投入하였다고 한다.

乳製品의 買入量은 총생산량 60,000,000M/T의 10%인 6,000,000M/T 으로서 우리 나라의 1981年度 총생산량 517,657M/T의 11.5年間의 생산량에 匹敵하는 양이 되는 것이다.

美國의 이와같은 施策과 制度는 농업경제의 자유화를 前提로 하는 경제구조체제에 있어서 消費者나 納稅者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낙농업이 국가의 경제발달이나 국민의 食生活을 向上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必需 振興되어야 하기 때문에 美國政府의 農政中 제일 먼저 해결하여야 할 難題中에 하나는 原乳價의 下落防止와 유제품 소비의 촉진이라고 한다.

歐州 E.C 共同農業政策에 있어서의 낙농제품에 대한 수입의 壁과 보호의 기준은 美國 보다 더 높다. E.C 域內的 유제품 價格을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國際價格에 비교하여 “버터”는 3~4倍이고 脫脂粉乳는 2~3倍이다. E.C의 農業에 있어서 主宗이 되고 있는 낙농업의 보호육성 政策을 보면 더욱 철저하여 國際價格의 차이를 補償하는데만 쓰이는 輸出獎勵金額은 E.C 各國이 공동부담하는 농업예산 중 50% 이상인 80억불로서 韓貨로 6兆원 정도 支出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E.C 域內로 부터 乳糖이나 탈지분유를 수입할때 價格이 비교적 低廉한 것은 그 價格의 相當額數를 輸出獎勵金으로 보상이기 때문이다.

隣近國인 日本에 있어서도 肉用種인 日本和牛 1,400,000頭에 비하여 乳牛는 2,100,000頭로서 肉用牛 보다 700,000頭가 더 많이 飼育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1982年 豫算에 加工原料乳 不足拂 보조금으로서 193萬M/T에 대하여 日貨 464억 9,600만円 그리고 學校 給食用 牛乳 事業費로서 공급수량 170萬34kg에 대하여 167억 8,800만円 合計 632억 8,400만円을 支出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원貨로 換算하면 1,898억 5,200만원이라는 國庫를 낙농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酪農業의 선진국들이 낙농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維持되고 진흥발달이 期必코 성취되도록 이와같은 膨大한 豫算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나 낙농가들은 深察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部署의 政策立案者 들은 과거를 自省하여 地球上에서 모든 인류와 함께 발달하여야 하는 낙농업의 진흥이 우리나라에서만 停滯나 중단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年例的으로 대두되는 유제품의 수입 論難이 再演을 거듭하면서 낙농가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낙농업의 基盤構築에 阻害가 되는 相衝現象을 야기시키면서 國益에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全世界의 酪農 産品에 對한 不足基調는 그 度를 더하면서 天候의 異變, 家畜의 疾病 및 穀類飼料의 生産性 制限 등 不安定要因이 항상 동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今후는 더욱 畜産물의 自給原則에 입각한 國內 生産의 합理化를 期하여 한다.

4. 乳, 肉의 需給의 衡平은 乳, 肉牛 飼養農家の 힘으로

現存하는 국가들에 대한 明示的인 標準値는 없다고는 하나 先進, 中進 또는 後進國이라고 하는 세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格差는 자연적인 것이나 人爲的인 것을 막론하고 한나라와 人種間의 민족단위로 영예와 치욕이 有形無形으로 착잡하게 交替하고 있는 불균형을 無分別하게 받아 드리고 있는 것이 罔연한 현실로 되어 있다.

人類가 愚昧에서 文明을 마련한 후 그 발전과정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 볼 때 너무도 遙遠한 옛날의 일이기엔 40억이라고 하는 人類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各者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것이나 推測하건대 古代 사람들이 遊牧生活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貧富의 차이는 分明히 없었을 것이다.

季節에 따라 흐르는 自然의 攝理는 尤구환 세월 人類는 증가하고 人知의 총명이 人間生活의 수단을 경쟁으로 변화시키면서 衣·食·住를 求하는 방법이 農耕이라는 原始産業을 창조한 것이라고 믿어 진다.

그 農耕의 특징이 동물인 家畜을 상대로 하는 主畜이나 植物인 作物을 대상으로 하는 主穀이나 하는데 따라서 主畜農業과 主穀農業의 영구 불멸의 기본적인 생리의 차이가 인간의 食生活를 主導하면서 人種間 主食을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兩立하게 하였고 그 결과는 人種間 또는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사회발달에 莫大한 格差를 초래하였다.

이와같이 主畜農業을 바탕으로 국가를 創建하여 민족의 번영을 도모한 소위 昨今의 先進國들은 颶風과 함께 몰려오는 怒濤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主畜農業 國家群을 형성한 白人種이 主軸이 되어 서기 15세기부터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서 제2차산업으로서의 轉換약진과 함께 공업생산의 급진적인 확장과 증가는 제3차 산업을 유발하여 福祉國家를 건설하고 人種과 국가간의 民族興亡이 喜怒哀樂의 역사로 點綴되어 있는 先代 史績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近來에 와서 경제대국들의 7個國 頂上會談의 개최 의의라던가 후진국의 底邊에 속하는 나라의 국민소득이 美貨百弗미만이라고 하는등 人間 侮辱의 현실이 세계에 共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원인을 깊이 審察하고 韓民族과 우리나라의 將來 中興의 절대성을 감안하여 主畜農業의 구조와 형태를 민족과 風土의 人資源 또는 時代的인 技術에 적응하는 畜産산업의 宗脈으로서 乳牛와 韓牛를 改良 肉肉化하여 우리 風土에 定着시켜 발전을 持續化할 수 있는 政策基調를 공고히 하는데 次元 높은 상호의 反省이 있어야 하겠다.

나라와 百姓의 발전만을 前提로 연구하고 精

選하여 다듬어진 정책기조는 정부의 獨善, 企業의 反社會的인 私的 욕망 또는 개인의 偏見 등으로 동요되거나 전진이 방해 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의 友邦인 美國은 人工위성을 발사하여 月世界를 정복하였고 “콜럼비아”號는 大氣圈을 선회한 후 地球로 無事히 귀환하여 宇宙旅行을 현실화 하는등 과학문명의 極致를 자랑하며 막강한 工業 生産力을 가지고 美國의 弗貨가 世界經濟를 支配하고 있으면서도 그나라의 국제적인 경제의 기초를 主畜農業에 의존하고 있다는 事實과 소련이 公산독재하에서 “비너스 3號”가 金星에 軟着이라는 美國의 과학문명을 능가하려고 하면서도 농업정책의 실패로 食糧不足을 충족하기 위한 양곡수입에는 美國에 대하여 無氣力하고 수치스러운 손을 내밀어야 하는 추태와 국가를 잃어 버리고 2,000年 이라는 長久한 세월을 방황하여야 하였던 유대 민족의 中東의 地中海 沿岸 사막에 “이스라엘” 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세계 각국에 산재하여 있으면서 유대인 특유의 경제력에 의한 後援에도 불구하고 그나라 酪農業의 생산성은 사막위에서도 세계 제일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는 찬란한 업적 등은 그 나라들의 政府나 國民이 우매하여서가 아니라 國土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生産性을 높이는 방법으로 農耕에서도 主畜農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축산물을 증산하여 국민에게 풍요한 牛乳와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 만이 民族의 知能과 正心력을 강화하고 강인한 體力向上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를 持續的으로 유지 발달 시킬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考證이며 그것이 주축농업의 生理와 哲學이라는 것을 爲政者는 물론이요 모든 國民들은 信奉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現實的으로 國家의 貧富, 國民의 強弱을 測定하는 尺度의 하나가 국민 1인당 牛乳와 쇠고기의 소비량이라는 것과 原始産業에서 現代産業으로 발달과정의 增産指數를 우리나라 농업의 主宗인 水稻作과 鶏과 쇠고기를 생산하는 酪農과 비교하여 보면 古代의 米作은 10a 에 精米

1石이라고 하였을 때 現代의 생산이 6石이라고 하니 指數面에서 600%의 성장을 하였고 酪農은 古代 1頭當 泌乳量이 1乳期에 우리나라 韓牛와 같이 600kg였다고 할때 現代 홀스타인種의 最高記錄은 24,000kg라고 하니 4,000%의 增加指數가 되므로 600대 4,000의 차이로 主畜農業 국가의 낙농업이 그나라 농업과 경제 발전에 格差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을 實績으로 받아 드려야 하며 이러한 과학적인 原理는 遺傳工學이 실용화 된다고 하여도 동물과 식물의 生理的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정책수립가들은 예측하여야 한다.

5. 集乳制度의 改善과 乳質改良

農産物이나 工業品을 총망라하여 購買者가 一方的으로 수량을 計量하고 품질을 검사하여 價格의 총액을 정한 후 制度的으로 代價를 後拂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原乳의 集乳方法에 따르는 모순된 酪農家의 原乳 販賣方式뿐이다.

특히 강조하여야 할 문제는 1986年의 亞細亞 競技大會와 1988年의 世界 夏季올림픽大會에 대비한 原乳의 공급과 乳質의 改良 向上 대책이 지금 부터 강구되어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을 위시하여 선진제국의 集乳實態를 보면 原乳는 거의 全量이 낙농가의 조직인 生産者 團體에 의하여 集乳, 計量, 檢査되고 있으며 그 原乳는 적정량이 年間契約으로 乳加工業體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生産者가 자기 들의 原乳를 集乳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一元化하여 개선 한다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過程에서 발생하는 乳加工業體別로 原乳의 쟁탈전이나 同一한 지역에 散在하여 있는 낙농가들의 原乳를 集乳하기 위한 운반차량의 중복운행에서 오는

“에너지”의 過多消費와 그에 따르는 附帶費 등 유제품의 原價를 절감하여 정부의 物價 適正線 유지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乳加工業體도 공장규모와 판매계획에 따르는 原乳의 적정량을 정기적으로 생산자가 공급하여 준다면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脫 “에너지”정책에 반대하면서 까지 自體集乳를 고집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明分도 없다는 것을 自省하여야 한다.

酪農家의 原乳 저장시설의 확장, 공동이용과 절대조건인 유제품의 품질향상과 乳質改良 등을 종합적으로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가공업체가 공동으로 토의하여 原乳의 計量, 檢査, 集乳 문제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하여 酪農業이 국가 경제발달이나 국민보건 體位向上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集乳體制의 一元化는 절대적이라고 하여도 낙농가의 能動的인 참여 없이는 그 성과를 저돌수가 없다는 사실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재 각 유가공업체별로 分散되어 있는 集乳施設의 歸屬, 活用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乳加工業體가 조성한 낙농가들의 借務가 있다고는 하나 생산자의 集乳團體가 原乳價에서 控除 返濟한다고 하는 책임을 진다고 하며는 반대할 理由나 다른 큰 問題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集乳體系의 개선으로 낙농가가 생산하는 原乳 판매의 권익침해방지와 유가공업체가 個別 分散 集乳에서 야기되고 있는 혼란과 오해 除去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며 乳質改良으로 國際水準의 良質의 유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는 責任과 榮譽도 같이 하여야 한다.

6. 山地와 풀과 소

人類文明의 발상지이며 세계인구의 七分之一의 국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 印度의 뉴데리에서 획득한 金메달 28개라는 장엄한 수자와 太

極旗의 제양, 愛國家의 봉주는 우리 國威를 아세아 각국에 선양하였고 승리한 우리 선수들에게는 명예와 영광으로 온 國民들로부터 정성 어린 환영과 추앙을 받았다.

이러한 國家의 영예와 선수들의 功績은 指導者의 힘과 경기자들의 피땀 어린 체력단련의 結晶이라고 하겠으며 오늘날 까지 “올림픽”에 있어서 金메달의 國家別 획득수를 보면 많은 個數를 얻은 국가는 그 국민이 食生活에 있어서 主食이 畜産物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면서도 특히 그 중에서도 쇠고기와 牛乳製品의 섭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人種 또는 국민의 食生活의 類型인 動物性과 植物性의 主食間의 차이로 영양면에서 人間의 체력과 정신력의 強弱에 절대성을 가지고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肉類와 牛乳의 年間 국민 1인당 소비량을 보면 肉類는 1963년에 3kg에서 1979년에는 11kg로, 牛乳는 1963년에 168gr에서 1981년에는 14,403gr로 增加하였다. 이러한 肉類와 牛乳의 消費量 증가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體力와 精神力 향상에 기여하여 金메달 획득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獨逸民族이 主軸이 되어 개척한 瑞西의 국토 개발 이용현황을 보면 총면적 4,129千餘ha 중 林野 1,051千ha 이고 알프스산의 草地가 1,086餘ha로 林野와 草地의 면적이 자기 全國土의 25%를 점하고 있다. 알프스의 草地는 高度의 技術과 管理에 의하여 集約的으로 풀을 재배하여 그 풀로 소를 기르고 그 소가 생산하는 쇠고기와 牛乳를 국민에게 풍요하게 공급하여 體力와 精神을 강건하게 하며 自然景觀을 人工적으로 美化하여 세계적인 觀光地로 각광을 받게 하였다.

우리나라도 瑞西와 같이 국가의 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山地와 草地에 대한 목적 의식을 확립하고 경제적인 收益性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그 방법과 優先順位를 검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人類의 역사는 山地와 풀, 소와 金메달이 항상 正比例하는 數値의 函數로 작용하는 哲理의 反復이라는 것을 우리는 認識하여야 한다.

7. 소와 人類文化와의 相關性

檀君始祖로 부터 역사적인 爰환의 明暗을 같이 하면서 우리민족과 함께 國民의 생활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韓半島를 지키은 家畜의 하나가 우리나라 固有의 품종인 韓牛이다.

특히 古代 농경생활에서, 우리 祖上들은 韓牛를 반려자로 또는 農경의 절대수단으로서 畜力을 이용하는 農機具를 개발하면서 우리 민족문화의 바탕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소가 人類文化에 공헌한 功績은 東洋文化圈보다는 西歐文化圈에서 더욱 현저하다. 言語와 文字의 세계 지배현상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회의에 通用語로 사용하고 있는 英語와 佛蘭西語, 西班牙語가 그 실례이다.

세계에 가장 먼저 소를 개량하기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生産能力이 우수한 品種을 육성한 나라가 英國이다. 그리고 鬪牛와 “로데오”로 유명한 나라가 西班牙이며 또 불란서는 독일의소의 두수 14,000,000여두 보다 10,000,000 두가 많은 24,000,000여두의 소를 기르고 있다. 이들 3國의 농업구조는 古代로 부터 共通의인 主畜形態로서 소를 길러서 쇠고기와 뼈터, 치즈등 유제품을 主食으로 하는 食生活을 하여온 나라들이며 民族들이다.

이들 나라의 國民들은 강건하고도 용감 하며 두뇌가 명석하여서 英國人은 美洲와 大洋洲의 全體와 東南 亞細亞 및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佛蘭西는 그 용감하기로 유명한 外人部隊를 앞세워서 개척한 아프리카에서 23개국이나 불란서어를 國語로 사용케 하였고 西班牙人은 南美洲에서 “브라질”을 제외 하고는 전체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연이 아니며 이들 민족들은 소와 같이 生活하면서 固有의 文化를 창달하였고 싸워서 쟁취한 위대한 歷史的인 遺産인 것이다.

現在도 영국은 젓소 成牛 3,500,000頭를 74,000餘戶의 酪農家에 의하여 16,000,000M/T의 原乳를 생산하여 54,000,000 國民에게 年間 1人當 300kg의 乳製品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英國의 낙농업은 영국인의 存亡과 偉業을 계승하는데 정부는 물론이요 온 國民이 절대조건으로 信奉하고 있으며 그것을 自給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는 한사람의 異斷者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이제 겨우 젓소 200,000頭와 20,000戶(1981年)의 낙농가가 600,000M/T의 原乳를 生産하며 年間 1人當 14.403kg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周期的으로 粉乳輸入의 自由化를 주장하는 공직자가 있음을 볼때 이것은 우리민족의 文化向上과 국가의 경제 사회 발달을 위한 장래의 앞길을 내다 볼때 짙은 안개가 가로 막는 비탈길이라 아니할 수 없는 悲運이 아닌가 한다.

韓牛의 改良問題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약간의 瑞氣가 보이기는 하나 과거에는 그릇된 迎合勢에 의하여 昏迷만을 거듭하였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와같이 人類의 문화와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先進國의 文明人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主食인 쇠고기와 牛乳를 생산하는 소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가장 많은 頭數를 보유 하였던 시기에 15억만두에서 현재는 3억만두 정도가 감소한 12억만두라고 추정되며 이와같은 소의 減少現象은 인류의 장래를 위하여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의 全體 品種數는 712品種이라고 하며 이中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品種은 約 300品種이다.

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印度로서 1억 8천만여두이나 되나 印度는 宗教的인 영향으로 소를 信仰의 대상으로 보유하

고 있을 뿐이며 소를 국민의 食生活와 직접 관련 시키지 않고 있는 奇異한 나라이기도 하다.

8. 소와 사람의 毒患

表 3. 世界의 用役別 品種

1. 乳 用 : 176種	7. 肉役兼用 : 8種
2. 肉 用 : 77種	8. ZEBU : 6種
3. 役 用 : 332種	9. 野 牛 : 26種
4. 乳肉兼用 : 52種	10. 水 牛 : 1種
5. 乳役兼用 : 18種	11. 鬮 牛 : 1種
6. 乳肉役用 : 6種	12. 其 他 : 9種

計 712種 經濟品種 300種

다음은 美國으로서 1억 4천여만두의 소를 飼育하고 있으며 국민의 食生活와 가장 合理的으로 直結 시키고 있는 나라이다.

國家의 面積 對比로는 소를 제일 많이 飼育하고 있는 나라는 和蘭으로서 國土面積 370만ha에 소를 495만두를 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比率로 소를 기르게 한다면 國土面積 985萬ha에 소 1,318만두를 기를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表 4. 世界 國土, 人口對比 소의 頭數

國 名	國 土	人 口	牛	1人當頭數	ha 當頭數
和 蘭	370萬ha	1,364萬名	495萬頭	0.36頭	1.33頭
瑞 西	413	654	195	0.29	0.47
英 國	2,440	5,643	1,462	0.26	0.59
愛 蘭	703	313	700	2.24	1.00
뉴질랜드	2,687	309	965	3.12	0.36
우루구아이	1,775	311	1,136	3.65	0.64
印 度	32,805	61,322	18,027	0.29	0.55
美 國	93,631	21,393	13,183	0.61	0.14
韓 國	985	3,812	178	0.05	0.18

人類의 生活와 소의 繁盛은 한나라의 民族과 社會文化에 깊은 相關性이 있다.

國家는 民族을 위하여 政府는 국민에게 소가 人類文化에 공헌한 考證을 널리 알리고 소가 사람과 함께 永遠히 同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의 家畜化의 歷史는 人類 文化史와 分離할 수 없는 密着된 관계가 있다. 舊石器時代 부터 소의 當時 사람들의 信仰과도 密着되어 있었으며 歐羅巴 동굴등에서 出土 되었다고 하는 浮彫裸婦像과 반달型으로 된 野牛의 髑髏이 그것을 歷史적으로 證明하고 있다. 특히 印度를 중심으로 한 農耕地帶에서 原住民들이 大地의 母神으로 널리 崇奉하였던 소의 髑髏과 반달은 豐作의 象徴이요 수렵인들에게 豐饒用으로서 豐獵의 信仰의 對象이 었다고 한다.

사람의 生活이 점차 自然수렵에서 農耕으로 바뀌어 지면서 소는 單純한 農耕對象에서 人類에게 공헌하는 가장 오래된 家畜으로서 사람과 共生하는 그 存在 意義와 位置가 더욱 公高하게 굳어졌다. 때문에 소와 사람과의 關係는 우리들의 無窮한 歷史와 함께 繼續 發展되리라고 믿는다.

소의 家畜化는 여러가지 考證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으로부터 約 1萬年前 티그리스(Tigris) 유프라테스(Euphrates), 나일(Nile), 인더스(Indus)江等 大河의 流域에서 發達하였던 農耕村落의 共通的인 古代 信仰의 中心으로서 聖牛가 神殿에 供養되면서 始作되었다고 한다. 古代 사람들이 捕獲한 많은 野牛中에서 性質이 온순하고 訓致되기 쉬운 子牛가 사람과 함께 生活하면서 그 보호하에 成長하고 繁殖되었을 것이다. 그후 소는 사람의 財物이 되었고 로마時代 最古의 硬貨中에 소의 像이 있다고 하는 事實과 함께 富의 象徴이 되었던 것이다.

알파벳(Alphabet)의 A 자는 소머리의 象形文字로서 發達되었고 페니시아(phenician)인이 發明한 알파벳의 첫글자인 α는 소를 意味하는 셈(shem)語의 알흐(Alef)에서 由來되었다고 하며 英語에서 소의 通稱語인 커틀(Cattle)은 動産(Chattel)과 같은 뜻의 말로서 資本(Capital)과 그 뜻이 서로 通하는 말이라고 한다.

소에 대한 傳說에 따르면 時代, 民族 및 地域

別 風土에 따라 그 호칭도 數多하여 原牛, 野牛, 土牛, 河牛, 聖牛(農牛), 鞭件, 鬪牛外에 요즈음에 와서는 役牛, 肉牛, 乳牛等으로 傳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는 中近東의 農耕地帶에서 家畜化되어 東西南北 四方으로 점차 擴散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考證을 參照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韓牛도 中國大陸 等地를 通하여 傳來된 것이 確實한데 韓牛가 日本 和牛의 原祖로서 日本에 傳來된 것이라고 하는 日本學者들이 證示하는 文獻에서도 그 것이 實證되어 있다.

소는 古代로 부터 人類와 함께 살아 온 것과 같이 將來에도 함께 살아갈 것이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運命을 같이 하고 있는 소의 立場에서 소를 同情하여야 한다.

요즈음 우리 소들은 옛날에 原野를 마음대로 뛰며, 먹고, 자라고 또 송아지를 낳아서 繁殖하고 놀던 때와는 달리 疾病과 害虫에 시달려야 하며 注射도 맞아야 하고 藥도 먹어야 할뿐만 아니라 속박되어서 自由가 없는 不便한 잠자리 自然味가 없고 選擇權이 없는 먹이의 制限 또는 亂暴한 사람들의 확대등은 우리 소들에게 毒이 되기도 하고 患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人類를 爲하여 奉仕하고 몸을 바쳐 犧牲하기로 한 우리의 平生 決心은 後代가 끊어지지 않는 限變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소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은 感謝하고 그 精誠에 報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와 함께 生活하며 소로 부터 所得을 얻어야 하는 소를 飼育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소를 愛護하여야 한다.

소를 育種, 繁殖하고 飼養管理하며 쇠고기와 젖을 生産하는 순수하게 소를 기르는 사람들 외에 畜産業 生産品의 買賣 流通 過程 또는 處理加工 分野에서 소를 등에 업고 貧慾致富를 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私利의 富를 이룬 사람으로 부터 憎惡을 받아야 한다.

近間 큰 손들의 社會的 物議나 행태를 볼때 소는 사람들의 流動性 社會를 理解하기

에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의 邪惡과 公明, 虛僞와 眞正, 規範과 放從 및 사치와 검소를 顛倒하여 社會에 毒患을 싹트게 한다면 共存共榮 하여야 하는 人類社會가 共鬪共滅하는 野獸社會로 轉落할 것이다.

世上 사람들 中 機關을 詐稱하고 職名을 濫用하고 假名을 常用하며 無識에서 오는 暴言과 亂動을 姿行하는 그러한 마음과 行動을 소와 共生하는 德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소에 對한 函數는 無이요 소가 그 사람에 對한 公約數는 零이 될 것이다.

9. 소를 사랑하는 마음 協會를 守護하는 마음

善良한 사람들의 不義 追放에 對한 鬪爭은 “유토피아”가 到來한다 하여도 우리들의 希望대로 正義롭게만 解決되지 않는 것이다.

20世紀 初盤 우리나라의 倭政 36年間의 歷史를 돌이켜 보아도 그러하다. 나라를 잃은 國民으로서 祖國의 獨立爭取를 爲하여 中國大陸, 滿洲 벌판, 또는 시베리아 異國 땅에서 가난의 굶주림과 함께 온갖 苦難을 몸소 甘受하면서 韓民族의 繁榮을 成就하고 三千里 江山에서 日帝를 몰아 내야 하겠다는 執念과 抗戰으로 平生을 보낸 獨立鬪士와 烈士들은 自己들의 名譽나 富貴를 누리지도 못하였고 바라지도 아니 하였다.

이러한 聖스럽고 高貴한 抗爭 渦中에서도 日本의 植民地 政策에 阿附同調하는 所謂 그 當時의 親日派들이 國家와 百姓을 저버리고 總督政治의 그늘 밑에서 倭人 官憲의 保護를 받아가며 義롭지 못한 榮華와 貴族 아닌 貴族生活을 하는 醜態를 보여 주었던 恥辱의 事實을 우리는 銘心하여 한다.

8. 15解放後 오늘날 까지 37年間 不幸하게도 우리 國土는 兩斷의 悲運이 繼續되고 있다. 同族間의 往來 조차 할 수 없는 北韓에는 共產主義

라는 것을 업고 侵入한 假名의 金日成과 그의 追從者들에 依하여 그 곳에 安住하여야 할 1,500萬 계를 閉鎖社會에서 抑壓하고 있다. 特히 可憎하여야 할 일은 人間은 누구를 莫論하고 神의 創造로 世上에 태어난 날을 生日이라고 하며 이날은 個人的 誕生紀念日은 물론이요 國家나 國民의 祝祭日은 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唯獨 이와같은 哲理를 拒逆하면서 까지 金日成만이 그의 生日을 北韓住民에게 自己 崇拜紀念日인 것처럼 소동을 부리는 狂的인 醜惡相을 드러내고 있다.

檀君聖祖 以來 5,000年 歷史上 日帝 植民治下의 36年間과 民族分裂 37年間은 期約할 수 없는 統一 念願의 將來를 내다 볼 때 가장 苦痛스러운 國家的인 悲哀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歷史를 回顧하면서 當協會의 沿革을 살펴 보면 1975年 5月 17日 農水産部의 設立 認可를 받은 社團法人 韓國企業牧場協會와 1976年 9月 18日 同一하게 認可를 받은 社團法人 韓國酪農協會가 當局의 團體 統廢合 施策에 따라 1981年 1月 16日 社團法人 韓國酪農肥育協會로 統合改編이 되어 分散되었던 소와 소를 飼養하고 사랑하는 養畜家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團結을 圖謀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마련 된 것이다.

그러나 統合 一年間 實務職員의 構成과 會費

策定의 問題等으로 當協會의 方向 設定과 位置 設定에 차질을 가져왔다.

所望 슨러운 일은 못되었으나 任員의 總辭退와 함께 新規로 그 數를 倍로 增加하고 運營改善을 前提로 하여 任員의 改編을 斷行 하였다. 그러나 民法 第32條에 依하여 非營利 團體로서 法的 保護를 받아야 하는 社團法人體에 對한 理解 不足과 非課稅의 惠澤을 逆利用 하려는 非理가 相乘作用을 하며 個人的 倫理 道德의 缺乏, 事實 判斷의 混迷 및 明分 없는 會費의 眩惑等이 當協會의 進路에 暗影을 던져 주기도 하였다

前述 한 바와 같이 우리가 願하지도 아니 하였고 願하여서도 아니될 日帝의 侵入 및 假名의 金日成이 行하고 있는 오늘날의 醜態와 같은 不純要素들을 排除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當協會는 20,000 酪農家와 肉用牛 飼養農家들의 純眞한 마음의 伴侶者가 되기 爲하여 소를 사랑 하는 마음으로 守護하여야 한다.

自己를 反省하지 못하고 世界的으로 歷史가 證明하며 萬人의 公認하는 農民의 協同組合 運動等 公法人의 存在와 活動을 否定的으로 非難하며 虛僞로 眞實을 假裝하고 權力의 外勢를 利己的으로 惡用하려는 사람들은 神聖하고 清純한 社團法人體에는 絶對로 參與하여서는 안되겠다.

日本乳牛飼育頭數

(1983年 2月 現在)

區 分	頭 數	年 齡 別 內 譯	
總 飼 育 頭 數	2,097,000 頭	1 歲 未 滿	393,000頭
搾 乳 牛	1,097,000	1 歲 以 上	255,000
韓 乳 牛	225,000	2 歲 以 上	242,000
未 經 産 牛	775,000	9 ~ 8 歲	1,116,000
		9 歲 以 上	91,000